

2011. 7.22.(금)

## 보도자료

2011년 7월 22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기획관 전파기반팀 최우혁 팀장(☎750-2230) 전파기반팀 김단호 사무관(☎750-2231) kdanho@kcc.go.kr

## IT기업 베트남 진출 가속화 된다

- 한-베트남 상호인정협정 방송통신기기 적용범위 확대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7월 21일에 "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" 고시를 개정함으로써, 컴퓨터 및 무선랜(와이파이)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 정도로 단축되어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.

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18일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협정서 상호 교환을 통해 방송통신기기 분야 상호인정협정(MRA,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) 1단계의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를 기존 유무선단말기기에서 컴퓨터 및 무선랜(와이파이) 등을 추가하여 확대 (6→13종)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.

## 〈 MRA 시행 단계별 비교 〉



##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행복 대한민국

- ▶ 시험성적서(Test Report): 해당 방송통신기기가 국가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- ▶ 인증(Certification): 방송통신기기가 기술기준 적합시험을 통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도

이번 조치는 對베트남 IT수출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베트남의 시험 인증 수준이 점차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, 2005년에 협상한 휴대폰 등 유무선단말기기 뿐아니라 컴퓨터 및 무선랜(와이파이) 등 IT제품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베트남 정부와 협상한 결과 이다.

< 2009~2010 IT수출증가율 상위 10대 국가(단위 : 달러) >

NO	국가별	2009년(수출액)	2010년(수출액)	증가율
1	베트남	378,757,882	896,612,907	236.72%
2	콜롬비아	23,006,936	49,418,318	214.80%
3	알제리	12,957,288	27,496,696	212.21%
4	슬로바키아	215,414,677	410,831,661	190.72%
5	이집트	54,104,595	94,565,599	174.78%
6	이란	137,709,538	201,452,468	146.29%
7	멕시코	1,644,852,766	2,301,845,089	139.94%
8	카자흐	35,241,021	49,301,656	139.90%
9	아랍에미리트연합국	592,600,535	828,338,720	139.78%
10	태국	287,349,147	397,950,861	138.49%

방송통신위원회는 "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IT 교역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,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국가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"고 밝혔다. 끝.